



## “추수할 때로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최 욱 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시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슬기를 주셔서 우리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며, 자조 자립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땅에 말일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주시고 이 의로운 봉화불은 잔디밭을 구르는 불덩이와 같아서 구르는 곳마다 불을 부쳐주고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깊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교구)만도 다

섯 개를 조직하여 주시고 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나고 있고 또한 서둘러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재미 동포들 사회에 까지도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져 활발히 전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축복은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놀라운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각적으로 물질만능주의적인 못된 생각과 배금사상이 고조되어 주객이 전도된 감을 주는 기형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가 깨지고 가정정이 파괴되는 슬픈 사실은 세계가 겪고 있는 고민이요 사탄의 작난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저주를 찾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도와서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손잡아 이끄러 주십니다. 개인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10)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들 개인을 돕기 위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네가지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배우기 위함이니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영생으로 인도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이 기쁨을 얻기 위함일진대 이 기쁨은 진리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운다 함은 무지로부터 해방시키이니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 지역 지도자 메시지

없느니라. (교성 131:6)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음은 영생으로 인도되는 기쁨이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를 돌보이니 교회는 성도들을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모든 복지를 돌보아 줍니다. 모든 성도는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킵니다.

넷째는 신전 의식을 준비시킴이니 신전 의식을 통하여 승영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위한 신전 의식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불완전한 한 사람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생동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김블 대관장님은 범법과 슬픔을 이기고 승영의 단계에 이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옳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생활 환경이나 세부 계획을 사전에 알 수는 없으나 좁고 협착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길을 택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배를 모는 선장이 어느 항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지를 모른다면 한 사람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발을 내 디딜 때 옳은 방향을 잡아 디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지 부식간에 습관이 들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죄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이 갈 길을 나타내 주는 말뚝을 일찌기 박아야 합니다. 그 말뚝은 “이것을 하겠다” 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고 하는 두 가지 결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인 활동, 표준, 영적인 목표, 개인 프로그램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젊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좋은 점을 발견하고, 교육, 선교 사업, 교회 봉사 등에서 뚜렷한 목표를 일찌기 세워 생활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유희를 물리치기가 쉽고 담배를 피우라는 첫번째의 권고에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고, 술을 권하는 말에도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장소로 차를 몰고 가도 좋겠느냐는 권유에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으며 부도덕한 관습에 젖게하는 첫번째의 부당한 권고를 받을 때에도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생기는 무지개 와도 같다. 일부터 이것을 잡으려 할때 자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따를 때 구태여 그것을 추구하려 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된다. “행복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그 답이 너무도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행복의 진수는 깨끗하고 간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계획없이 인생을 살아 가는 사람은 별이 없는 밤 하늘을 보던지 항해하는 선원이 아니냐 침관 없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최대의 행복에 대한 확신, 지상 생활, 승영, 영생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생활을 할려고 계획하여 정해진 우리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복극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땅에 회복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보라,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교성 4:4)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낫질하는 자를 축복하시리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우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성료

지난 9월 9일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십이사도 정원회 힝크리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7와드에서 1,750여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서 스테이크는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 새로 조직된 북 스테이크는 9와드 감독으로 봉사한 홍 무광 형제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맞이하였다.

새로운 스테이크 탄생으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로 이 도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이 도환 형제는 화곡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힝크리 장로는 성도들이 좀더 노력하면 또 다른 하나의 스테이크를 곧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중앙: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좌: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제 1보좌 김 차봉  
우: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제 2보좌 이 도환  
2열 좌측 허 병석(집필 서기) 우측 황 종원(서기)



중앙: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홍 무광  
좌: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제 1보좌 이 남선  
우: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제 2보좌 박 기생

##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 대망의 한국 공연 실현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시내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대 공연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성도와 웅대한 합창단의 신비스런 합창을 들으려는 음악 애호가들을 위하여 내한한 이들은 2회의 공연을 통하여 열렬한 갈채를 받았으며, 성도는 물론 참석한 청중을 환희의 순간을 맛보게 하였다.

이번 태버나클 합창단 한국 공연은 한국 성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말씀하는 힝크리 장로와 한 인상 지역 대표



새로 조직된 북 스테이크 역원을 임명 지지를 묻는 이 남선 부장과 홍 무광 부장(오른쪽)



열연하는 합창단



청중에게 답례하는 반주자



합창단 지휘자인 오블리 형제와 답소하는 성도



공형에 마중나온 성도들

## 부산 스테이크 탄생

지난 9월 6일 7시 부산 지부(현 제1와 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핁크리 장로를 모시고 부산 스테이크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핁크리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과 성약에 따라 살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였고, 한 인상 지역대표는 신임 역원 지지를 물었다. 약 800여명의 성도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 호남선교부장은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킨 주인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복도와 정원에까지 성도들로 꽉찬 이 모임에서 참석자는 모두 주님의 영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중앙: 스테이크 부장: 장 재 환  
좌: 제1 보좌: 김 증 명  
우: 제2 보좌: 김 치 원



##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한국 신학 연구원 제5회 졸업식 및 1979학년도 제2학기 입학식이 9월 8일 오후 3시에 신권 지도자, 학부모, 동문, 재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에 있는 신학 연구원 건물에서 김수영 교수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신 김종균 축복사님의 개회 기도에도 이어 최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고·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서희철 원장은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로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신학 연구원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하면서 졸업생과 신입생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식이 끝난 후 전통적인 졸업 축하 “떡”이 제공되었으며, 신입생들은 곧 신 일동 교수의 지도로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고, 졸업생과 동문들은 한곳에 모여 동문회를 하면서 옛정을 나누기도 했다.



말씀하는 브렛사 형제와 서희철 원장



졸업식에서 말씀하는 서희철 원장

### 프랭크 엠 브렛사 형제 내한

교회 교육 기구 극동 지역 책임자였던 프랭크 디 데이 형제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남미지역 책임자였던 프랭크 엠 브렛사 형제가 새로이 부임하면서 9월 9일 오후 7시 내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으로 봉사했고, 6.25 동란 참전 용사이기도 했던 브렛사 형제는 11일 오후 8시에는 300여 명의 학생, 성도, 내외 귀빈을 모시고 신학 연구원에서 특별 강연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걸음의 폭을 넓히고,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며, 가정을 잘 돌보고, 복지 프로그램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대관장님의 말씀을 재강조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당부했다.



신권 지도자와 제5회 신학 연구원 졸업생 일동